

AI 집중 전남, 45일만에 오리사육량 반토막

16개 시·군 166농가서 245만마리 키워

총력 대응 효과 소강상태... 보상금 56억

영암·나주를 축으로 확산세를 보이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강상태다. 휴지기 확대, 4단계 방역 등 총력 대응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엔 휴지기 확대와 살처분에 따라 전남 오리 사육량이 반토막 났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

16개 시·군 166 농가에서 245만5000마리 오리를 키우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겨울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지난해 12월10일 이전에는 313농가, 479만3000마리였다. 하지만 발생 45일 만인 이날 233만8000마리(48.8%)로 줄었다.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입식 제한이 있

따른 데다가 동절기 사육 제한에 참여하는 농가도 늘었기 때문이다.

전국 가금 농장 AI 14건 가운데 11건이 전남에서 발생하면서 40 농가에서 키우던, 81만2000마리가 살처분됐다. 보상금은 56억원에 달한다.

전남도는 야생조류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주변의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역대는 늘어날 수도 있다.

오리 사육농가 입식 사전 승인도 시·군에 일임했던 것을 도에 보고를 거처도록

절차를 강화해 위축된 사육 규모가 회복되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AI는 지난 10일 강진과 장흥에서 발생한 뒤 2주일간 소강상태를 보였다. 전남에서는 영암 4건, 나주 2건, 고흥 2건, 강진 2건, 장흥 1건의 AI가 발생했다.

중오리 5건, 육용 오리 5건이었으며 다솔(2건)·사조화인(2건)·성실(1건)·정다운(1건) 등 계열 농장에서 6건, 개인 농장에서 5건이 발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빛고을 열린 강연방 아리바다'

전라도 대표 지식공유 플랫폼 자리매김

광주시가 '가치 있는 강연의 기부와 공유'를 주제로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 열린강연방 아리바다'가 전라도 대표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 지역공동체추진단은 24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진흥센터에서 구충천 시 지역공동체추진단장과 박경자 진흥원 교육사업본부장, 관계 공무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콘텐츠아카데미와 빛고을열린강연방 아리바다 지식공유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콘텐츠아카데미의 강연 콘텐츠를 아리바다에 제공한다. 또 특별강연 기획콘텐츠 제작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350만 관람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한 영화 '신과 함께'의 주호민 작가의 강연물을 제공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한전KDN,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지식공유 협약을 체결했으며, 조만간 한전 등 빛가람혁신도시 5개 공공기관과도 지식공유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광주시와 생활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등 5개 시·군과도 협약해 강연 콘텐츠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리바다는 광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구축한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강연을 강연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개시 2년여 만에 열람 건수가 21만건을 돌파하는 등 전라도를 대표하는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평창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24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김지욱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장과 선수단이 평창에서의 선전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김 양식 악영향 광생이모자반 피해예방 나서

신안해역 등 1800여t 유입

김 양식에 피해를 주는 해조류인 광생이모자반이 전남 해역에 대량 유입돼 전남도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11일 강릉으로 신안 등 전남 해역에 광생이모자반 1800여t이 유입됐다. 광생이모자반은 중국에서 바다 숲을 복원하려고 대량 양식한 해조류로, 2015년부터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중국 저장(浙江)성에서 추진하는 광생이모자반 양식 중대 사업 여파로 국내 유입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생이모자반은 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김을 채취할 때 광생이모자반을 제거하느라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고 4

월까지 유입되면 피해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전남도는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등 예비비 10억원을 지원해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광생이모자반 처리를 위한 인건비, 선박·중장비 등 인자비, 위탁처리비 등으로 활용된다.

전남도는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발생지·이동 경로 등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정밀 피해조사도 할 예정이다.

송원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피해가 지속하면 농어업자에 대책에 따른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김은 물론 해조류 양식시설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사업체·종사자 수 늘긴 했는데... 증가율 2010년대 들어 최저

사업체·종사자 수 전국 9위

다음달 6일부터 한달간 조사

전남 사업체와 종사자 수 증가세가 급격히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연간 3% 이상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 2% 이하로 곤두박질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남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는 14만9715개, 종사자는 69만4326명이었다. 사업체 수는 전국(395만192개)의 3.8%를 차지했으며 17개 시·도 가운데는 9번째다.

사업체는 2009년부터, 종사자는 2005년

부터 계속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증가세보다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수 증가세는 2012년 3.4%, 2013년 3.0%, 2014년 4.4%, 2015년 3.0%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1.7%로 크게 증가폭이 좁아졌다.

종사자 수 증가는 전년 대비 2013년 3.6%, 2014년 5.2%, 2015년 5.3%를 기록했다가 2016년 0.5%로 4.8%포인트 급락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2016년 업체 수는 12만14개로 전년보다 불과 6곳이 늘었는데 그쳤다. 종사자 수는 2015년 11만5102명에서 2016년 10만8542명으로 오히려

6560명(5.7%)이나 줄었다.

한편 전남도는 2월6일부터 3월7일까지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에 나선다. 지역별 사업체 규모와 분포, 고용 구조 등을 파악하는 통계 조사로 정책 수립·평가, 지역 개발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박화현 전남도 법무경제담당관은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각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의회 25일

을 첫 임시회 개최

25일 오후 첫 전남도의회가 개최한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과 장만재 전남교육감의 도정·교육 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8일까지이며,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 강성취 의원(목포1·국민의당)이 대표 발의한 청년 구직지원 조례안과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수녀의 명예도민 등인 등이 안건도 처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초등학교 주변 도로 점점 컨설팅 감사

시 감사위, 155곳 대상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점점하는 컨설팅 감사를 벌인다.

이번 감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광주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 대상은 광주지역 155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이며, 오는 29일부터 3월16일까지 진행된다.

시 감사위원회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구조적인 문

제점과 교통안전시설의 안전성 등을 조사·분석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과 초등학교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느낀 불편 사항을 접수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설물 관리청에 통보해 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운영될 시 감사위원장은 "컨설팅 감사를 계기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당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음로 166 해가온빌딩 1~5층